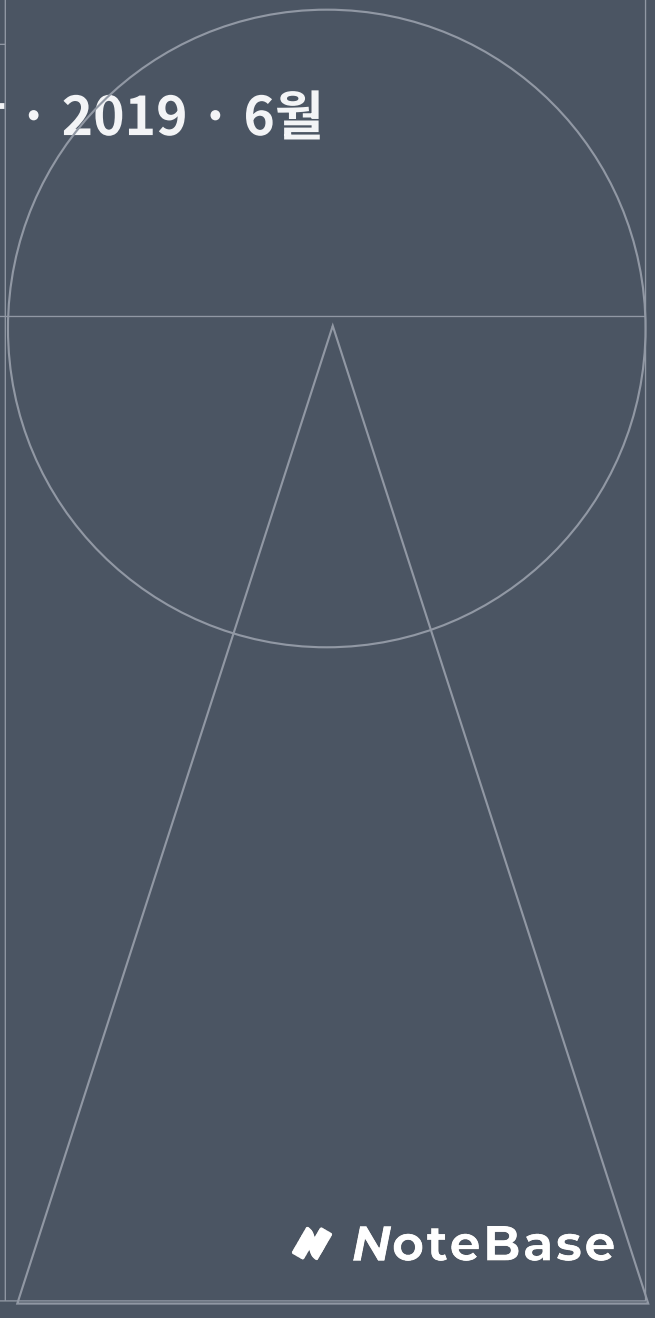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회계학 · 2019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회계학 · 2019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회계학 · 2019 · 6월

문 1.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에 건물을 ₩2,000,000에 취득하였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주)서울은 이 건물에 대하여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한편, 건물의 공정가치는 20×1년 12월 31일과 20×2년 12월 31일에 각각 ₩1,800,000과 ₩1,050,000이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서울의 20×2년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 재평가잉여금은 후속기간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① 순손실 ₩100,000

② 순손실 ₩300,000

③ 순손실 ₩450,000

④ 순손실 ₩55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2년 말 재평가 감소액 300,000원 중 기존 재평가잉여금 200,000원을 초과하는 **100,000원만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여기에 재평가 후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450,000원을 더하면 당기순손익은 **550,000원 감소**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말 재평가잉여금: 정액법은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첫해 감가상각비는 $\frac{2{,}000{,}000-0}{5}=400{,}000$원이고,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2,000,000 − 400,000 = 1,600,000원이다. 이를 공정가치 1,800,000원으로 올리므로 증가액 200,000원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한다. 이 금액은 당기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2. 20×2년 감가상각비: 재평가 후에는 **재평가된 장부금액을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20×2년 초 장부금액은 1,800,000원이고, 잔존가치는 0원이며, 잔여내용연수는 5 − 1 = 4년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frac{1{,}800{,}000-0}{4}=450{,}000$원이다. 이를 차감한 20×2년 말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1,800,000 − 450,000 = 1,350,000원이다.

3. 20×2년 말 재평가손실: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1,050,000원으로 낮춰야 하므로 재평가 감소액은 1,350,000 − 1,050,000 = 300,000원이다. 동일 자산의 재평가 감소액은 **기존 재평가잉여금 잔액까지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하고, 초과액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문제에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잔액은 200,000원이다. 따라서 200,000원은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300,000 − 200,000 = 100,000원만 당기손실로 반영한다.

4.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 20×2년 감가상각비 450,000원과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손실 100,000원을 합산한다. 당기순손익 감소액은 450,000 + 100,000 = 550,000원으로, ④의 순손실 ₩550,000에 해당한다.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한 200,000원은 기타포괄손실이므로 당기순손익 감소액에 더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 차입원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②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③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④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재고자산·금융자산·유형자산 등이 해당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예시 중 **금융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적격자산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장기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이 기간의 차입원가는 자산을 완성하는 데 드는 원가가 아니라 미완성 자산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상당한 기술적·관리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를 위한 준비 과정에 필수적인 일시적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② O: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생산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자본화란 발생한 차입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 원가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 밖의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O: 특정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특정차입금은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그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얻은 투자수익을 차감**하여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구한다. 자산에 지출하기 전 일시적으로 운용하여 얻은 수익만큼 해당 차입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이 산정 방식은 특정차입금에 적용하며, 일반차입금은 적격자산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X: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이다. 장기간의 제조가 필요한 재고자산이나 건설 중인 유형자산 등은 해당할 수 있지만, **금융자산은 적격자산에서 제외**된다. 금융자산의 보유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적격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기간에 생산되는 재고자산이나 취득 즉시 사용·판매할 수 있는 자산도 적격자산이 아니다.

NoteBase

문 3. <보기>의 자료로 계산한 변동원가계산방법과 전부원가계산방법 간 영업이익의 차이는?

<보기>
기초재고수량 0개
생산량 200개
판매량 180개 매출액 ₩180,000
총 변동재료원가 ₩100,000
총 변동가공원가 ₩20,000
총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
총 고정판매비 ₩10,000

① ₩2,000
② ₩3,000
③ ₩5,000
④ ₩7,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원**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3,000원 더 크다.

NoteBase

계산 과정

비용 처리 기준: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전부원가계산은 이를 **제품원가에 포함**하므로 판매된 제품에 배분된 금액만 매출원가가 되고, 미판매 제품에 배분된 금액은 기말재고로 남는다. 변동재료원가와 변동가공원가는 두 방법 모두 제품원가에 포함하며, 고정판매비 10,000원은 두 방법 모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이익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기말재고수량: 기초재고가 0개이고 200개를 생산하여 180개를 판매했으므로, 기말재고는 $0 + 200 - 180 = 20$개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총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원을 생산량 200개에 배분한다. 따라서 제품 한 개에 포함되는 금액은 $\frac{30,000}{200} = 150$원이다. 분모는 판매량이 아니라 **생산량**이다.

영업이익 차이: 전부원가계산에서는 판매된 180개에 배분된 $180 \times 150 = 27,000$원만 당기 매출원가에 포함되고, 나머지 $20 \times 150 = 3,000$원은 기말재고에 남는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30,000원 전액이 당기 비용이므로, 전부원가계산의 당기 비용이 3,000원 적다. 따라서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3,000원 더 크며**, 이 차이는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주)서울은 20×1년 초에 <보기>와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 시 거래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유효이자율은 연 6%(기간 3, 단일금액의 현가계수는 0.84, 연금의 현가계수는 2.67)이다. 중도상환이 없다고 할 때, (주)서울이 사채의 전체 기간 동안 인식할 총 이자비용은?

<보기>
액면금액: ₩1,000,000
이자지급: 매년 12월 31일에 액면금액의 4% 이자 지급
상환: 20×3년 말에 일시 상환
사채 발행 시 거래원가: ₩1,500

① ₩120,000
② ₩121,500
③ ₩173,200
④ ₩174,7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사채의 총 이자비용에는 매년 지급하는 이자뿐 아니라 **발행할인액과 거래원가의 상각액**도 포함된다. 전체 원리금 지급액 1,120,000원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최초 장부금액 945,300원을 빼면 총 이자비용은 174,7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발행가액: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1,000,000원 × 4% = 40,000원이다. 발행가액은 만기에 갚을 원금과 매년 지급할 이자를 각각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이다. 주어진 연 6%의 현가계수를 적용하면 1,000,000원 × 0.84 + 40,000원 × 2.67 = 946,800원이다.

최초 장부금액: 사채 발행 시 발생한 **거래원가는 금융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최초 장부금액은 946,800원 − 1,500원 = 945,300원이다. 이는 발행대금에서 거래원가를 지급하고 실제로 확보한 순금액이다.

전체 원리금 지급액: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이자를 세 번 지급하므로 이자 지급액의 합계는 40,000원 × 3 = 120,000원이다. 만기 원금 1,000,000원을 더하면 전체 지급액은 1,120,000원이다.

총 이자비용: 중도상환 없이 만기에 액면금액을 상환하면, 최초 장부금액과 만기 상환액의 차이가 사채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상각된다. 따라서 총 이자비용은 **전체 원리금 지급액에서 최초 장부금액을 뺀 금액**으로, 1,120,000원 − 945,300원 = 174,700원이다. 지급이자 120,000원에 발행할인액 53,200원과 거래원가 1,500원을 더한 금액과도 같으며, ④의 ₩174,700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주)서울의 20×2년 초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각 ₩400,000과 ₩4,000이었다. 20×2년 중 외상매출액이 ₩1,000,000이고, 매출채권의 정상회수액이 ₩800,000이다. 20×2년 중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금액은 ₩3,000이다. (주)서울이 20×2년 말에 회수가능한 매출채권 금액을 ₩590,000으로 추정할 경우, 20×2년에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① ₩1,000

② ₩2,000

③ ₩6,000

④ ₩7,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말에 필요한 대손충당금 7,000원과 대손 확정 후 남아 있는 충당금 1,000원의 **차액 6,000원**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당기 대손확정액 3,000원은 기존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한다.

계산 과정

1. 기말 매출채권 잔액: 외상매출은 매출채권을 늘리고, 정상회수와 대손 확정은 매출채권을 줄인다. 따라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400,000 + 1,000,000 − 800,000 − 3,000 = 597,000원이다.

2. 기말에 필요한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중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하는 차감계정이다. **매출채권 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이 회수가능액 590,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충당금은 597,000 − 590,000 = 7,000원이다.

3. 결산 조정 전 대손충당금: 대손이 확정되면 **매출채권과 기존 대손충당금을 함께 감소**시킨다. 따라서 기초 충당금 4,000원에서 대손확정액 3,000원을 차감하면, 조정 전 충당금은 1,000원이 남는다.

4. 당기 대손상각비: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 7,000원 중 이미 남아 있는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비용으로 추가 인식한다. 대손상각비는 7,000 − 1,000 = 6,000원이며, 이는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주)서울은 20×1년부터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계약금액은 ₩200,000, 추정총계약원가는 ₩150,000이다. 계약원가는 20×1년에 20%, 20×2년에 50%, 그리고 20×3년에 나머지가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실제 발생액과 일치하였다. 20×3년에 완성된 공사는 발주자에게 즉시 인도되었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서울이 20×3년에 인식할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에서의 이익의 차이는? (단, 진행기준의 진행률은 누적 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① ₩15,000

② ₩20,000

③ ₩35,000

④ ₩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진행기준은 20×3년에 수행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이익 15,000원을 인식하고, 완성기준은 완성·인도한 해에 **전체 이익 50,000원**을 인식한다. 따라서 두 기준의 20×3년 이익 차이는 35,000원이다.

계산 과정

전체 공사이익: 실제 총계약원가가 추정액과 일치하므로 전체 공사이익은 계약금액 200,000원에서 총계약원가 150,000원을 뺀 50,000원이다.

진행기준의 당기 진행분: 진행률은 누적 발생계약원가를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20×2년 말 누적 발생원가는 150,000 × (20% + 50%) = 105,000원이므로 누적 진행률은 $\frac{105,000}{150,000}$ = 70%이다. 20×3년에 공사가 완성되어 누적 진행률이 100%가 되므로, **20×3년 당기 진행분**은 100% − 70% = 30%이다.

진행기준의 20×3년 이익: 진행기준은 공사가 수행된 정도에 따라 수익과 대응 원가를 각 기간에 인식한다. 계약금액과 총계약원가에 변동이 없으므로 당기 공사수익은 200,000 × 30% = 60,000원이고, 당기 공사원가는 150,000 × 30% = 45,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이익은 60,000 − 45,000 = 15,000원이다. 완성 시점이라고 해서 **이미 앞선 기간에 인식한 이익을 다시 인식하지 않는다**.

완성기준의 20×3년 이익: 완성기준은 공사 진행 중에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고, **공사를 완성하여 인도한 때** 전체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인식한다. 이 공사는 20×3년에 완성되어 즉시 인도되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이익은 200,000 − 150,000 = 50,000원이다.

이익 차이: 완성기준의 이익이 진행기준보다 50,000 − 15,000 = 35,000원 크며,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보기>의 원가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서울의 당기 매출원가는?

<보기>
당기제조간접원가 ₩180,000
당기총제조원가 ₩320,000
기초재공품재고액 ₩10,000
기말재공품재고액 ₩5,000
기초제품재고액 ₩20,000
기말제품재고액 ₩22,000

① ₩321,000
② ₩322,000
③ ₩323,000
④ ₩32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공품과 제품의 원가 흐름에서는 **기초재고는 더하고 기말재고는 뺀다**. 재공품 재고를 조정한 당기제품제조원가 325,000원에 제품 재고 증감을 반영하면 매출원가는 323,000원이다.

계산 과정

당기총제조원가: 당기에 생산에 투입한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따라서 주어진 당기총제조원가 320,000원에는 **제조간접원가 180,000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더하지 않는다.

당기제품제조원가: 기초재공품재고액에 당기총제조원가를 더하면 당기에 가공 대상이 된 재공품의 총원가가 된다. 여기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말재공품재고액**을 빼면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를 구할 수 있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10,000 + 320,000 − 5,000 = 325,000원

당기매출원가: 기초제품재고액에 당기제품제조원가를 더하면 당기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원가가 된다. 여기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기말제품재고액**을 빼면 판매된 제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다.
당기매출원가 = 20,000 + 325,000 − 22,000 = 323,000원

계산된 매출원가 323,000원은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주)서울은 20×1년 중에 지분상품을 ₩101,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취득 시 지급한 현금에는 ₩1,000의 취득관련 거래원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서울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주)서울은 20×2년 2월 초에 지분상품 전부를 처분하였다. (주)서울이 20×1년도 재무제표와 20×2년도 재무제표에 상기 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인식할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단, 20×1년 말과 20×2년 2월 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각각 ₩120,000과 ₩125,000이며, 처분 시 거래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20×1년: 기타포괄이익: ₩19,000 증가, 20×2년: 변동 없음

② 20×1년: 기타포괄이익: ₩19,000 증가, 20×2년: ₩5,000 증가

③ 20×1년: 기타포괄이익: ₩20,000 증가, 20×2년: 변동 없음

④ 20×1년: 기타포괄이익: ₩20,000 증가, 20×2년: ₩5,000 증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취득관련 거래원가를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하므로 20×1년 기타포괄이익은 19,000원이다. 20×2년에도 처분 전까지의 공정가치 상승액 5,000원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며, **처분 시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계산 과정

최초 장부금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취득 시 공정가치에 취득관련 거래원가를 더하여 인식한다. 지급액 101,000원에는 거래원가 1,000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분상품 자체의 취득 시 공정가치는 101,000 − 1,000 = 100,000원이고 최초 장부금액은 100,000 + 1,000 = 101,000원이다. 거래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에 가산**한다.

20×1년 기타포괄손익: 기말에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120,000원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기타포괄이익은 120,000 − 101,000 = 19,000원이다. 20,000원은 거래원가를 제외한 1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므로 이 문제의 기타포괄이익과 다르다.

20×2년 기타포괄손익: 처분 시 거래원가가 없으므로 처분 직전 공정가치 125,000원과 전기 말 장부금액 120,000원의 차액인 125,000 − 120,000 = 5,000원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이 지분상품은 처분하더라도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누적액을 이익잉여금 등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당기 기타포괄손익을 상쇄하는 처리가 아니므로 20×2년의 기타포괄이익 증가액은 5,000원이다.

20×1년 19,000원 증가, 20×2년 5,000원 증가이므로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작성원칙이 아닌 것은?

①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여 작성한다.

④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에서는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 내부거래를 상계하는 것은 해당 거래 당사자들을 함께 묶어 유형별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때 같은 유형 안의 회계실체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거래는 상계한다.

② O: 같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거래는 상계**한다.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하나의 회계실체로 보면 내부에서 주고받은 거래이므로, 그 효과를 제거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③ X: 같은 규칙 제9조제3항은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해당 개별 회계실체의 관점에서는 다른 회계실체와의 거래도 자신의 거래 내역이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상계하여 작성한다'를 '상계하지 않고 작성한다'로 고쳐야 한다. 이 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O: 같은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NoteBase

문 10. <보기>는 (주)서울의 2018년 1월 1일 자본 관련 자료이다. 2018년 5월 초에 보통주 200주를 주당 ₩4,500에 발행(유상증자)하였으며, 11월 말에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000에 현금 취득하였다. 2018년도 당기순이익이 ₩500,000이었다면, 2018년 말 자본총액은?

<보기>

Ⅰ. 자 본 금

보통주자본금 ₩10,000,000 (주당 액면금액 ₩5,000)

Ⅱ.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

Ⅲ. 이익잉여금 ₩2,300,000

자본총액 ₩13,300,000

① ₩13,800,000

② ₩14,100,000

③ ₩14,300,000

④ ₩14,7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유상증자는 **실제 납입액**만큼 자본을 늘리고, 자기주식 취득은 **취득원가**만큼 자본을 줄인다. 기초 자본에 이 두 변동과 당기순이익을 반영하면 기말 자본총액은 14,1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초 자본총액: 2018년 1월 1일 자본은 보통주자본금 1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원, 이익잉여금 2,300,000원의 합계인 13,300,000원이다.

유상증자: 5월 초 보통주 200주를 주당 4,500원에 발행하였으므로 현금 납입액은 200주 × 4,500원 = 900,000원이다. 부채 증가 없이 현금이 유입되므로 자본총액도 900,000원 증가한다.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은 자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며, **자본총액의 증가액은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기주식 취득: 11월 말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원가는 100주 × 6,000원 = 600,000원이다.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에서 차감**하므로 자본총액이 600,000원 감소한다.

당기순이익: 2018년도 당기순이익 500,000원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므로 자본총액에 더한다. 문제에 별도의 배당이나 다른 자본 변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말 자본총액: 기초 자본총액에 유상증자 납입액과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자기주식 취득원가를 차감한다.
13,300,000원 + 900,000원 − 600,000원 + 500,000원 = 14,100,000원
이는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주)서울은 2017년 3월 1일에 기계장치A(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3,600,000에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 초 기계장치A에 대해 감가상각방법을 기존의 연수합계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면 2018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① ₩540,000

② ₩624,000

③ ₩864,000

④ ₩96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배분**한다. 2018년 초 장부금액 2,600,000원을 남은 50개월에 정액법으로 배분하면, 2018년 12개월분 감가상각비는 624,000원이다.

계산 과정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처리: 연수합계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2017년 감가상각비는 종전 방법으로 계산하고, 2018년 초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2017년 감가상각비: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해당 사용연도의 잔여내용연수 비율을 곱한다. 내용연수 5년의 연수합계는 5 + 4 + 3 + 2 + 1 = 15이고, 첫 사용연도의 비율은 5/15이다. 잔존가치가 0원이므로 첫 1년분 감가상각비는 $3{,}600{,}000 \times \frac{5}{15} = 1{,}200{,}000$원이다. 2017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만 인식**하므로, 감가상각비는 $1{,}200{,}000 \times \frac{10}{12} = 1{,}000{,}000$원이다.

2018년 초 장부금액과 잔여기간: 원가모형에 따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3,600,000 − 1,000,000 = 2,600,000원이다. 총 내용연수는 5 × 12 = 60개월이고, 그중 10개월을 사용했으므로 **남은 내용연수는 50개월**이다. 달력상 연도가 바뀌었다고 사용기간을 1년으로 보아 남은 기간을 4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2018년 감가상각비: 잔존가치가 0원이므로 남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은 2,600,000원이다. 정액법은 이 금액을 남은 50개월에 균등하게 배분하므로 월 감가상각비는 $\frac{2{,}600{,}000}{50} = 52{,}000$원이다. 2018년에는 12개월 전체에 변경된 방법을 적용하므로 감가상각비는 52,000 × 12 = 624,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보기>는 (주)서울의 2018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이다. 2018년 말 유동비율이 150%일 경우, 자본금은?

<보기>

현금	₩150,000	단기차입금	₩200,000
매출채권	₩200,000	건물	₩1,100,000
매입채무	₩250,000	사채	₩500,000
유동성장기부채	₩150,000	장기충당부채	₩300,000
미수금	₩100,000	자본금	?
재고자산	?	이익잉여금	₩350,000

① ₩100,000

② ₩150,000

③ ₩200,000

④ ₩25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동비율 150%를 적용하면 유동자산은 900,000원이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자본 600,000원 중 **이익잉여금 350,000원을 제외**한 자본금은 25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유동부채 계산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200,000원, 매입채무 250,000원, 유동성장기부채 150,000원의 합계이다.
유동성장기부채는 장기부채 중 상환기일이 가까워져 **유동부채로 분류된 금액**이므로 포함한다.
유동부채 = 200,000 + 250,000 + 150,000 = 600,000원

2. 유동자산 계산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이다. 150%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1.5배라는 뜻이다. 따라서 현금·매출채권·미수금·재고자산을 합한 유동자산은 다음과 같다.
유동자산 = 600,000 × 1.5 = 900,000원

3. 총자산과 총부채 계산
유동자산에 비유동자산인 건물 1,100,000원을 더하면 총자산이 된다. 유동부채에 비유동부채인 사채 500,000원과 장기충당부채 300,000원을 더하면 총부채가 된다.
총자산 = 900,000 + 1,100,000 = 2,000,000원
총부채 = 600,000 + 500,000 + 300,000 = 1,400,000원

4. 자본금 계산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 부채 + 자본이므로, 자본은 2,000,000 − 1,400,000 = 600,000원이다. 이 자료의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므로 **자본 전체에서 이익잉여금을 빼야** 자본금을 구할 수 있다.
자본금 = 600,000 − 350,000 = 250,000원
이는 ④의 250,0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3. 다음 중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

②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

③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④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은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제3자에게 제공한 선급금 및 대여금의 회수는 자금을 제공했다가 돌려받는 거래이므로 **투자활동 현금유입**으로 분류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주된 수익창출활동으로 제공한 선급금 및 대여금의 회수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

② O: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은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재고자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해당 계약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은 **영업활동 현금유입**으로 분류한다.

③ X: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은 미래 수익과 현금흐름을 창출할 장기자산에 자금을 투입하는 거래이므로 **투자활동 현금유출**에 해당한다. 영업에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대금의 지급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④ X: 자기주식의 취득은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사들이는 거래로, 납입자본의 크기와 구성에 영향을 주므로 **재무활동 현금유출**에 해당한다. 다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래와 구별한다.

NoteBase

문 14. (주)서울은 당기에 생산한 제품을 전량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는 ₩450이고 공헌이익률은 25%이다. 총고정원가는 생산량이 1,500단위 이하일 경우 ₩180,000이고, 1,500단위를 초과할 경우 ₩240,000이다. 목표이익 ₩60,000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판매량은? (단, 법인세는 없다.)

① 1,200단위

② 1,400단위

③ 1,600단위

④ 2,000단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단위당 공헌이익은 150원이며, 고정원가 180,000원을 적용해 구한 1,600단위는 **1,500단위 이하라는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고정원가 240,000원을 적용해야 하며, 목표이익 60,000원을 달성하는 생산·판매량은 2,000단위이다.

계산 과정

1. 단위당 공헌이익 계산: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이고, 공헌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공헌이익의 비율이다. 공헌이익률이 25%이므로 변동원가율은 75%이다. 따라서 단위당 판매가격은 $\frac{450}{0.75} = 600$원이고, **단위당 공헌이익**은 600 − 450 = 150원이다. 제품 한 단위를 판매할 때마다 고정원가 회수와 이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50원이라는 뜻이다.

2. 목표이익 관계식: 생산한 제품을 전량 판매하므로 생산량과 판매량은 같다. 생산·판매량을 Q, 총고정원가를 F라 하면 이익=150Q-F이다. 법인세가 없으므로 목표이익 6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Q = \frac{F + 60{,}000}{150}$으로 계산한다. 즉, 전체 공헌이익이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의 합계**를 충당해야 한다.

3. 1,500단위 이하 구간 검토: 고정원가 180,000원을 적용하면 필요한 수량은 $\frac{180{,}000 + 60{,}000}{150} = 1{,}600$ 단위이다. 그러나 이 값은 **고정원가 180,000원이 적용되는 상한인 1,500단위를 초과**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구간의 최대 생산량인 1,500단위에서도 이익은 150 × 1,500 − 180,000 = 45,000원으로 목표에 미달한다.

4. 1,500단위 초과 구간 계산: 이 구간에서는 총고정원가 240,000원을 적용한다. 필요한 생산·판매량은 $\frac{240{,}000 + 60{,}000}{150} = 2{,}000$단위이다. 2,000단위는 **1,500단위 초과 조건을 충족**하며, 이때 이익은 150 × 2,000 − 240,000 = 60,000원이다.

따라서 목표이익 60,000원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판매량은 2,000단위이며, ④의 수량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보기>는 유통업을 하는 ㈜서울의 20×9년 결산일의 재고자산 자료이다. ㈜서울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20×9년 결산일에 ㈜서울이 인식해야 하는 것은?

<보기>

상품	재고수량	단위당 취득원가	단위당 추정판매가	단위당 추정판매비
가	40개	₩200	₩250	₩100
나	20개	₩400	₩500	₩100
다	10개	₩100	₩200	₩50

①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

② 재고자산평가손실 ₩1,500

③ 회계처리 없음

④ 재고자산평가이익 ₩5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저가법에서는 상품별로 취득원가와 **판매비를 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한다. 상품 '가'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개당 150원으로 취득원가보다 50원 낮으므로, 40개에 대해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원을 인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평가 기준: 저가법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판매하여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액이다. 이 문제의 유통상품은 단위당 추정판매가에서 단위당 추정판매비를 빼서 계산하고, 상품별로 취득원가보다 낮아진 금액에 재고수량을 곱하여 평가손실을 구한다.

상품 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250 − 100 = 150원이다. 취득원가 200원보다 50원 낮으므로 단위당 평가액은 150원이며, 평가손실은 (200 − 150) × 40 = 2,000원이다.

상품 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500 − 100 = 400원이다. 취득원가 400원과 같으므로 20개 모두 원가로 평가하며, 평가손실은 0원이다.

상품 다: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200 − 50 = 150원이다. 취득원가 100원보다 높으므로 10개 모두 원가로 평가하며, 평가손실은 0원이다. 원가를 초과하는 50 × 10 = 500원은 **평가이익으로 인식하거나 다른 상품의 평가손실과 상계하지 않는다**.

인식할 금액: 상품별 평가손실 합계는 2,000 + 0 + 0 = 2,000원이다. 따라서 20×9년 결산일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원을 인식하며, 이는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서울은 20×1년 초에 구축물(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구축물의 취득대금은 20×1년 초에 ₩100,000을 지급하고, 잔금 ₩200,000은 20×2년 말에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일반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하는 것이다. ㈜서울은 구축물에 대해서 내용연수 5년 경과 후 원상회복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데, 5년 후 원상회복에 ₩30,000의 원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축물 취득 시 유효이자율과 원상회복의무 측정 시 할인율이 모두 연 5%일 때, 구축물과 관련하여 ㈜서울이 20×1년에 인식할 금융비용 총액은? (단,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은 중요하며, 기간 2와 기간 5의 5% 단일금액의 현가계수는 각각 0.91과 0.78이다.)

① ₩10,270

② ₩13,600

③ ₩1,170

④ ₩9,1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금융비용에는 **이연 잔금의 이자**와 **복구충당부채의 할인액 상각**이 모두 포함된다. 각각의 최초 현재가치에 연 5%를 적용한 9,100원과 1,170원을 합하면 20×1년 금융비용은 10,270원이다.

계산 과정

1. 이연 잔금의 이자: 잔금 지급이 일반 신용기간을 초과하므로, 미래 지급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고 이후 이자를 인식한다. 20×1년 초부터 20×2년 말까지는 2년이므로, 최초 미지급금은 200,000 × 0.91 = 182,000원이다. 20×1년 이자는 **기초 미지급금의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182,000 × 5% = 9,100원이다. 취득 시 바로 지급한 100,000원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복구충당부채의 금융비용: 5년 후 원상회복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므로, 예상 복구원가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최초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그 금액은 30,000 × 0.78 = 23,400원이며 구축물의 취득원가에도 포함된다. 이후 **시간 경과로 증가하는 부채 금액**은 금융비용으로 인식하므로, 20×1년에는 23,400 × 5% = 1,170원이 발생한다.

3. 금융비용 합계: 구축물은 20×1년 초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해당 연도의 이자를 사용 준비를 위한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금융비용으로 인식한다. 금융비용 총액은 9,100 + 1,170 = 10,27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구축물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배분하는 비용이므로 금융비용 합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④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지만 손상검사는 수행한다**. 손상징후가 없어도 매년 검사하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에도 검사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것은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원가를 배분하는 상각은 하지 않지만,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손상징후가 있을 때에도 검사한다.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② O: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기업의 평판이나 고객관계 등에서 생기는 가치를 포괄하므로, 기업이 통제하면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O: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측정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원가모형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며, 재평가모형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려면 **활성시장을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O: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예상 사용기간이나 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검토한다. 예상 내용연수가 달라지면 상각기간을, 예상 소비형태가 달라지면 상각방법을 변경하며,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18. (주)서울의 20×3년도 재무제표에는 <보기>와 같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오류수정 전 (주)서울의 20×3년 말 이익잉여금이 ₩67,000일 때, 오류수정의 영향을 모두 반영한 (주)서울의 20×3년 말 이익잉여금은? (단, 오류는 모두 중대하며, 법인세는 없다.)

<보기>
(가) 20×2년 말 재고자산 과대계상 ₩30,000,
20×3년 말 재고자산 과대계상 ₩20,000
(나) 20×1년 초에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할 수선비 ₩8,000을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 가산(20×1년 초 현재 기계장치의 잔존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

① ₩41,000
② ₩43,000
③ ₩45,000
④ ₩47,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말 이익잉여금에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20,000원과 잘못 자산으로 처리한 수선비 중 아직 상각되지 않은 2,000원이 누적되어 있다. 이 **누적 과대계상액 22,000원**을 차감하면 오류수정 후 이익잉여금은 4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이익잉여금은 과거부터 누적된 이익이므로, 20×3년 말 금액을 수정할 때는 **그 시점까지 남아 있는 오류의 누적 영향**을 반영한다. 법인세가 없으므로 세금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 재고자산 오류: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자산에 당기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자산을 빼서 구한다. 20×2년 말 재고자산의 30,000원 과대계상은 그해 매출원가를 줄여 이익을 30,000원 늘리지만, 20×3년에는 기초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매출원가를 같은 금액만큼 늘린다. 따라서 이 오류의 누적 이익 영향은 상쇄된다. 반면 20×3년 말 재고자산 20,000원 과대계상은 당기 매출원가를 줄이므로, **20×3년 말 이익잉여금은 20,000원 과대계상**되어 있다. 이를 수정하려면 20,000원을 차감한다.

(나) 수선비 오류: 8,000원은 20×1년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하지만, 기계장치에 가산되어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인식되었다. 잔존가치 없이 4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이 오류로 추가 인식된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8,000}{4} = 2,000$원이다. 20×1년부터 20×3년까지 3년간 $2,000 \times 3 = 6,000$원이 비용으로 반영되었으므로, 누적 비용은 $8,000 - 6,000 = 2,000$원 부족하다. 따라서 **아직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은 2,000원**만큼 이익잉여금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다.

오류수정 후 20×3년 말 이익잉여금은 $67,000 - 20,000 - 2,000 = 45,000$원으로, ③의 금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교가능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관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② 표현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④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동일한 항목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일관성**의 의미이다. 비교가능성은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하게 하는 특성이며, 일관성은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비교가능성은 이용자가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반면 일관성은 한 기업의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의 기업 간에 동일한 항목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지 앞부분은 일관성에 대한 설명이며, 두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보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 달성을 돕는다.**

② O: 표현충실성을 갖추려면 경제적 현상에 대한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완전성은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고, 중립성은 특정 결과를 유도하도록 정보를 편향되게 선택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서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를 산출하는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적용했다는 뜻이지, **추정금액까지 완벽하게 정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추정치라는 사실과 추정절차의 성격·한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적절한 절차를 오류 없이 적용했다면 추정치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③ O: 중요성은 특정 기업의 재무정보에서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정보의 금액뿐 아니라 성격도 고려하므로, 같은 금액의 정보라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중요성은 **해당 기업에 특유한 목적적합성의 측면**이다.

④ O: 목적적합한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이다. 예측가치는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의 투입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고, 확인가치는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으며, 두 가치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

NoteBase

문 20. <보기>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표의 내용이다. 일반수익은?

<보기>
사업순원가 ₩180,000 관리운영비 ₩220,000
비배분비용 ₩40,000 비배분수익 ₩30,000
재정운영결과 ₩150,000

① ₩180,000
② ₩210,000
③ ₩260,000
④ ₩27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뺀 금액**이다. 재정운영순원가가 410,000원이므로, 일반수익은 410,000 − 150,000 = 26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재정운영순원가 계산: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은 뺀다**. 사업순원가 180,000원과 관리운영비 220,000원을 합하면 400,000원이다. 여기에 비배분비용 40,000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30,000원을 빼면 재정운영순원가는 410,000원이다. 이는 일반수익을 차감하기 전의 순원가이다.

2. 일반수익 계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재정운영결과이므로, **일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의 차액**이다. 따라서 일반수익은 410,000 − 150,000 = 260,000원으로, ③의 금액에 해당한다.

NoteBase